

Part 1 동조압력은 모든 생물의 숙명이다

01 생물이 무리짓고 사는 것은 생존 본능이다

새들이 일제히 무리지어 날아가는 이유

사자는 마사이족을 보면 황급히 도망친다

- 인류는 사냥을 하거나 야생동물로부터 몸을 지키면서 생존하기 위해 집단생활을 해왔고, 그런 습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02 인간만이 부모를 존중하는 동물이다

유전자 보전을 위한 이기주의

부모가 죽어도 유전자의 존속과는 관계없다

03 사람은 왜 욕을 할까?

내가 낮아지면, 나는 올라간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시대

04 오직 인간만이 목에 떡이 걸려서 죽는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9% 똑같다

- 인간은 후두가 낮은 곳에 위치하여 말을 할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점은 있다. 목에서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이 기관에 들어가 폐렴에 걸리거나 혹은 목에 걸려 질식사할 위험을 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목에 떡이 걸려 목숨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목소리는 생존 전략의 하나다

- 인간이 음성언어로 복잡한 정보교환이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존률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을 자부하며 세상을 지배하게 된 데는 다양한 언어 표현이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05 왜 고릴라는 가만히 쳐다볼까?

언어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가

개도 인간에게 동조한다

06 타인의 성행위를 보고 흥분하는 이유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사진집이 150만 부나 팔린 이유

- 동조압력은 패션이나 대중가요, 영화, 유행어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번져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세를 이루는 흐름에 동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얘기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이지 알게 모르게 동조압력에 가담해왔던 것이다.

07 고등동물만 흉내를 낼 수 있다

원어민 영어를 목표한다면 7세 이전에
계속 흉내만 내서도 안되는 이유

08 원숭이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동조의 기술을 알고 있는 일본원숭이
원숭이에게도 존경심이 있다

09 싫다고 말하는 게 왜 나쁜가

마음속의 차별은 개인의 자유다

-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개인의 심리적 차별까지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심리적 차별은 제도로 막을 수 없다.
- 인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혀서 쾌감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차별함으로써 자신이 차별받을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억지로 법으로 막으려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Part 2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의견이 이노베이션을 만든다

10 왜 소고기는 되고, 개고기는 안되나

살생이 교묘히 은폐되는 사회

문신했다고 목욕탕 물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11 인간은 뭐든지 먹었기에 번영할 수 있었다

수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리스트

- 인간이란 동물은 왕성한 호기심으로 기아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도 항상 새로운 먹이를 개척해왔다. 인간만이 식물,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패류, 곤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식생활의 확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인체 실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호랑나비는 먹이의 종류를 나눠서 섭취한다

12 남들처럼 해서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에 변명할 수 있었다

- 벤처기업을 세우는 사람은 사회 안에서 항상 소수파다. 그들은 기꺼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나아갔다.
-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동조압력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소수의견을 외치는 이 괴짜들인 것이다.

13 정신장애를 가진 천재가 많았다

정신장애는 감기처럼 흔한 병이다

- ‘양극성 기분장애’란 기분이 유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가 교차해서 나타나거나 둘 중 하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 정신의학자들은鬱증일 때는 자살할 힘조차 없지만 울증에서躁증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샤먼

- 인간 집단에는 보통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지도자와 정신적인 통합을 위한 지도자가 나란히 존재한다.

14 뇌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버릇이 있다

탄압을 받을수록 높아지는 신앙심

- 세계 어느 역사를 돌아봐도 종교가 탄압을 받을수록 신도들의 열정만 높아질 뿐이다.

정치는 종교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 종교와 관련된 테러를 막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여러 형태의 테러는 미국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15 독불장군 괴짜가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타인과 똑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쉽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큰돈을 벌 수 있다

-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타인과 동조하며 일하는 시대에 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돈을 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16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

‘표준’을 강조하는 명청이들

-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의 발견 뒤에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들이 많았다.

획기적인 것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 동조압력에 굴하지 않는 소수의 연구자들을 위해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오늘이다.

17 원숭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

동물 개체는 언제 태어났을까

- 누군가 일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배척부터 하기보다는, 집단에 다양성과 새로운 발전 요인을 가져올 특별한 존재라고 봅시다.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런 생각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 조직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보면 된다.

Part 3 다수결이 불러온 비극들

18 안전제일주의가 가장 위험하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

- 객관적 평가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적당한 안전주의가 된다.

맹종만을 원하는 조직은 반드시 망한다

19 연대 책임은 무책임과 동의어

과학사에 길이 남을 가짜 연구

계속 확대되는 책임의 소재

- 책임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면 오히려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지게 된다.

20 돈에 오염된 학자들의 세계

조작을 해서라도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 유혹

21 성과주의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교수들

성과주의가 낳은 비극

- 세상을 놀라게 할 임팩트를 주는 연구들은 논문의 편수나 영향력 지수 같은 형식적인 기준들과는 상관이 없다.
- 1편의 논문이라도 그 연구가 정말로 독창적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학계와 사회에서 업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22 교육제도를 바꿔도 학생들은 똑똑해지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엉망진창 교육제도

오늘의 대학이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들

23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사회

중간이 없는 사회는 불행하다

24 다수결이라는 한심한 원칙에 대하여

소수가 눈에 띄는 행동하면 괴롭힘을 당한다

- 민주주의란 어쩌면 소수를 괴롭힘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원래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이라는 규칙은 소수가 된 쪽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담배는 나쁘고, 술은 괜찮다?

- 흡연도, 대마초도, 음주도 전부 다 보장받아야 할 자의성의 권리다. 사람은 타인이 가진 자의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한, 즉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자유다. 나는 이것을 성숙한 사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5 집단 시위를 하지 않는 일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심리

26 악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빙어도 원래는 왜래종이었다

27 모두가 같아지면 두렵지 않다

‘헤이트 스피치’가 언론 자유를 빼앗는 역설

Part 4 소수의견이 중요한 세상이다

28 민주주의는 사상 최악의 정치제도

민주주의 안에 도사린 문제들

세계 제일 민주국가 독일에서 나치가 탄생했다

일본의 헌법 9조, 무엇이 문제인가

맹목적인 애국심이 확대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타인과 동조했을 뿐

29 일본은 미국의 속국인가

일본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짓만 반복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선택

일본이 미국과 대등하다는 착각

일본의 지위는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쟁에 찬성하는 단 10% 사람들

30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 무엇이 더 안전할까

원자력 발전은 시한폭탄과 같다

플루토늄 재사용은 망상이다

31 미국이 강한 진짜 이유

전쟁의 승패는 에너지 자급률에 달렸다

일본이 미국에 굶질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32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일삼는 진짜 이유

이겨도 져도 이득이 될 일은 없다

33 글로벌 자본주의에 싸게 팔리는 일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결말은 무엇일까

일본은 유달리 동조압력이 강한 나라

글로벌 자본주의에 싸게 팔리는 일본

34 지구온난화보다 지구한랭화가 더 두렵다

지구의 온도가 변하는 진짜 이유

일본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